北 "2차·3차 물리적 보복 타격" 위협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시작… 서해 위기감 최고조

한미가 28일부터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보복타격을 공언하고 나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서해 격렬비열도 해상 등에서 진행될 연합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 7000t급)와 미사일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등 양국 함정 10여척이 동원될 예정이다.

훈련 구역이 북방한계선(NLL) 인접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해상사격 훈련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에서 "조선 서해가 분쟁 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 때문"이라면서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측의 NLL 무력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빌미로 군사적 도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훈련구역에 북한이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을 쉽사리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들은 관측하고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는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갑판에 전폭기인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80여대가 탑재되어 있다.

9700t급 이지스구축함 1척에는 평양 노동당사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여기가 탑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 주야간 관계없이 화력 및 기동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것이 항모강습단이다.

지난 7월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된 '불굴의 의지' 훈련 때도 북측의 도발 위협이 있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항모강습단의 전투능력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해상 도발보다는 육상과 공중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NLL에서 멀지 않은 황해도 황주비행장에 MIG-23 5대가 전개된 데 이어 추가로 3~4대가 전개를 마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황주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미그기는 4~5분이면 NLL까지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비상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성동격서식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이 상향되어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평도 시찰 샤프 사령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26일 연평도 포격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이날 민간인 피해 지역을 시찰한 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평양무용대학 방문 김정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무용대학을 현지지도 하고 있다. 이번 시찰에는 강석주 부총리,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외교라인이 총출동해 연평도 포격 도발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대응 K-9 자주포탄 80발 어디로 갔나

軍 "개머리·무도 해안포기지 피탄 흔적"

군당국이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대응해 응사한 K-9 자주포탄 80발이 어디로 떨어졌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거리 40㎞ 이상으로 최대 3분간 분당 6발을 사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는 살상 반경이 가로 50m×세로 50m에 달한다. 이 범위내에 있는 인명이나 시설은 거의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화력을 가진 자주포 80발이 북한의 개머리, 무도 해안포기지를 향해 집중적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북측에 엄청난 피해가 났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관련 첩보가 입수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유·무선 교신을 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 때는 30여명이 사상했다는 첩보를 유·무선 통신으로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안포기지 주변의 위성사진과 정찰화면에도 정확한 피해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80발 중 상당수가 바다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K-9 자주포는 1989년 개발에 착수한 뒤 10여년의 연구 개발 끝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삼성테크윈에 의해 생산됐으며 1999년 연평도에 처음 배치됐다. K-9 자주포를 북한지역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도 그 성능과 위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3일 연평부대에서 북측 무도 해안포기지를 향해 대응포격을 했을 때 기지 주변에 탄착됐고 산불이 발생한 것이 관측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무도와 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지역에는 다수의 피탄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가 매몰되는 등 피탄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 소대장 버리고 도주 병사 재판 회부"

美 RFA 보도

북한군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직후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교정에 '큰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나돌아, 학교 전체가 크게 술렁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대학생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방한계선에서 큰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사건 직후 김일성대 학생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면서 한때 대학 전체가 크게 동요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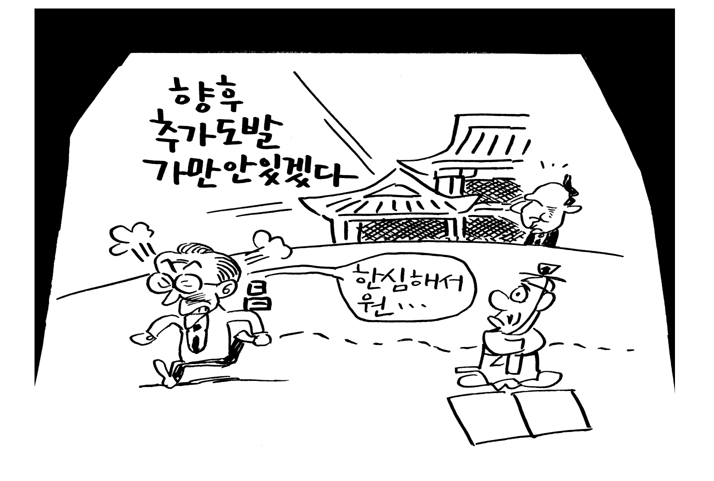
이 소식통은 "김일성대의 군 고위간부 자녀들과 황해남도 출신 재학생들을 통해 (연평도) 소식이 전해진 것 같다"면서 "지방출신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교전 소식을 전하려고 한꺼번에 몰려들어, 교내 공중전화소가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밖에 북한 내에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소문'에는 '북한군이 원래 1차 포격만 계획했는데 남한의 대응타격에 자극받은 강경파 군관(장교)들이 2차 포격을 가했고, 포격전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높이 치하했다'는 것도 있다고 RFA는 소개했다.

또 북한군에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났으며, 남측의 포격에 놀라 부상당한 소대장을 버리고 달아났던 인민군 3명이 체포돼 '동지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것이다. 량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병사들이 버리고 달아난 소대장이 숨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도주병이 있었다는 소문은 무성하다"면서 "도주한 병사들이 동지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연평도 공격 사흘만인 26일 우리 해병대 포병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음을 처음 시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해에 직접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아들 군대 안보낸 대쪽도 화났다

전남도 연평도 주민에 쌀 지원… 광주시는 성금

강운태 시장 31사단 방문 장병 격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 돕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북한의 포격 도발로 재난상황에 처해 있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전남쌀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쌀 20㎏들이 500포대를 매입해 인천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평도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긴급 지원용 쌀은 화물트럭을 이용해 오는 29일 전남도청에서 출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쌀지원 대책은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북한의 포격도발로 재난상황에 놓여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날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숙소인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스파월드를 방문, 주민대책위원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강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가 광주의 아들이어서 광주 시민들이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31향토사단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중인 병사 4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장병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한 만큼 맡은 책임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행기·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설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연말 되기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가 타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비리행위로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지역민의 기부 열기는 식지 않았다고 한다. 사랑과 나눔의 문화는 단순히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품격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기부에 참여한 지역민은 6243명에 이르고 기증된 물품은 30만점을 넘어섰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최고 3배 가량이 많다. 매장 수도 11개로 대구·경북 3개, 전주·전북 6개 등에 비해 월등하다.

국내 기부와 나눔 문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내 대기업의 기부금은 매출액의 0.1~0.08% 수준에 불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기부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부 열기 의미가 각별하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기부도 필요하지만, 얼굴 없는 천사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작은 정성과 나눔의 온기는 더욱 소중하다. 광주 북구의 한 신발 가게 사장은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신발 1000여 켤레를 기증했다. 이 같은 남다른 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나눔 문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민의 기부 열기가 확산돼 코앞으로 다가온 올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지역 학원들 '입시장사' 당국은 뭘 하나

서울에서 최근 잇따라 열린 학원들의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장사판'으로 전락해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입시 설명회를 빌미로 1대1 진학상담을 유도해 무려 건당 50만 원 상담료를 받고 있다니 말이다. 또 주 당 수강료가 300만 원이나 되는 논술 수강 권유도 예사라고 한다.

게다가 지원 배치표 상 합격 및 지원 가능 점수대가 너무 높고, 학과 선호 추세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들이 많아 혼란을 부추기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시학원이 집계한 수능 가채점 결과와 일선 고교에서 파악한 원점수 기준 합격선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대입 설명회에 매달리는 것은 지역에 입시 설명회가 없어 진학 정보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부정확한 사설 입시학원의 정보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입시학원에선 건당 수십만 원을 받는 고액 맞춤형 진학지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진학방향, 수시·정시 모집 경향, 입학사정관제 추세 등 기본 정보라도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또한 공교육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불법 고액 진학지도나 과외만큼은 막아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믿고 진학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삼성광주전자 생활가전 글로벌 1위 의지 피력

이재용 부사장 어제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사진)이 26일 삼성광주전자를 방문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회사 헬기로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삼성광주전자 방문해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1월1일로 다가온 양사의 합병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생활가전 글로벌 1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구내식당에서 임원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팀장들로부터 에어컨·냉장고 등 제품별 업무보고를 받고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이 부사장은 6시간여 걸친 삼성광주전자 방문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께 승용차 편으로 상경했다.

이 부사장의 이날 삼성광주전자 방문은 지난 17일 이건희 회장이 이 부사장의 연말 사장 승진을 공식화한 이후 첫 외부행사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 부사장이 6시간이 넘는 시간을 삼성광주전자 방문에 할애한 점을 들어 생활가전 부분에 대한 적잖은 애정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구구조 분석 통해 전남 인력정책 방향 모색

전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포럼

전남발전연구원(원장 허동만)은 26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전남 인구증대 및 경제활동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5차 전남발전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의 전남 인구 추이를 진단하고 전남의 인구구조를 분석해 향후 전남의 인구 및 인력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미래 전남 인구 전망을 통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구조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전남 인력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허동만 원장은 "전남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및 인력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鍾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